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박사과정 김 연 희*
교 수 유 미 숙
Dep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im, Youn-Hee
Professor : Yoo, Mi-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of adolescents. This data used in this study used data was derived from the wave 2-4(2004-2006) of Korean Youth Panel Study (KYP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relationship(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had a moderating effect o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adolescents. In short, it was verified that in the case of good social relationship, academic stress could actually buffer the effect of psychological health. However, it term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t was not confirm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in the 11th grade.

The results from above suggest that schools and related facilities adolescent should consider the program to reinforce social relationship and the timing of the intervention.

▲주요어(Key Words) : 학업 스트레스(academic stress), 청소년(adolescent), 정신건강(psychological health),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Ⅰ.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큰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고유한 인간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기도 한다(이인정, 최해경, 2000).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가정・학교생활 및 진로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왔다(권오숙, 문성호, 2007; 최명구, 신은경, 2003; 한건환 외 2004). 특히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과 관련하여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호택, 이민규, 1987; 이경숙, 김정호, 2000). 청소년(12-18세)의 스트레스 원인을 조사한 보건복지부(2006)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7%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학업이라고 응답하여 학업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87.6%가 학습과 시험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23.5%가 학습과 시험스트레스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뉴시스, 2009년 4월 16일자).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이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주저자・교신저자 : 김연희 (E-mail : palanca79@paran.com)

한국청소년연구원(1992)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증적 문제로 강박장애를 들면서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정의숙, 김갑숙, 2008)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육현장에서의 학업경쟁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므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이경진, 조성호, 2004; 홍영수, 전선영, 2005). 또한, 청소년의 불안(한태영, 2005), 우울(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자살생각(고재홍, 윤경란, 2007; 김기환, 전명희, 2000; 문경숙, 2006)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그 청소년이 속한 가족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입증한 논문들이 다수 등장하였다(강승호, 정은주, 1999; 문경숙, 2008; 윤혜미, 남영옥, 2007).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청소년이 부적응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이 매우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이를 조절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을 찾아내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Baron과 Kenny(1986)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절변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절효과의 분석은 어떤 효과가 '언제' 혹은 '누구'에게 발생하는가를 밝히고자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 적합한 방법이므로 종속변인에 대한 독렵변인의 효과를 완충시키는 변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간 관계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게 된다(MacKinnon & Leucken, 2008).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변인을 상정하여 조절변인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 및 또래지지의 일종인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애착이론은 부모와 자녀가 형성하는 친밀한 애정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러한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청소년기에도 중요한 발달변인이다(김인숙, 이경님, 2004). 이러한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혜원, 이재연, 2008; 이경님, 2004; 전영주, 2001; Grotevant & Cooper, 1998). 최근 모상현과 김미영(2009)은 아버지와의 대화빈도와 대화 가능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됨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또래와의 대화정도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화수준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한 것일 뿐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의 역할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것은 또래와의 관계이다. 청소년에게 또래는 현재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Gross & Siperstein, 1997; Woodward & Fergusson, 1999). 더욱이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학령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Bryant, 1982)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 시기에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이 또래요인은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어유경, 2005),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결과도 김현순(2005)의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고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를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관계 즉, 부모·또래와의 관계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학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학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환경의 변화가 개인에게 부과될 때 정상적인 반응들이 찾아지지 않거나 효율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상태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죽음이나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조아미,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학업성적, 학습 등과 같은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승호, 정은주; 1999; 원호택, 이민규, 1987; 이경희, 1995; 신현균,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을 다양한 생태체계변인들과의 관계를 고찰한 염행철과 조성연(2007)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났고,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살펴본 임은미와 정성석(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학업, 부모, 외모, 물질, 친구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를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조강래, 2007),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등과 같이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오미향, 천성문, 199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발달적 과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성적에 대한 압박, 과도한 학업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문영주, 좌현숙, 2008). 특히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학업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청소년의 소식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에 따르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이 1998년 57%에서 2006년 67%로 10%의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는 극단적일 경우 우울증,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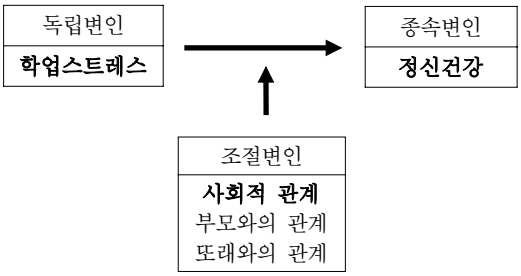
2.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연구한 강승호, 정은주(1999)는 고등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문제, 자신문제, 환경문제 가운데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불안, 강박, 신체화 장애 등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미리(1994)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을 비교한 Lee와 Larson(2000)은 그들의 연구에서 한국의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높은 이유를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윤혜미, 남영옥(2007)은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과 같은 요인과 공존하게 되면 극단적인 위험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이 밝혀진 바 있다(강은실 외, 2004; 신민섭외, 1990; 홍영주, 전선영; 2005). 우울과 함께 불안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문경숙, 200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평가, 또래와의 경쟁,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로 인한 불안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자살충동 등을 일으켜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부모나 교사 혹은 상담가가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발달상의 한 부분이다(문경숙, 2008). 더구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그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된 후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의 역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속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되고 이는 정신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림 1> 연구모형

모든 청소년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왔다(Gerard & Buehler, 2004; Agnew et al. 2002). 그 중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완충모델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연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 외에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이 스트레스와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절변인으로 포함되고 있다. 보호요인에 포함되는 변인은 크게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으로 나뉘는데 개인적 자원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성격 기질과 같은 요소나 자존감이나 통제신념과 같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환경적 자원은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그것이다(Gore & Eckenrode, 199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Cobb(1976)가 제시한 고전적인 정의는 사랑받는 느낌, 가치있거나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의 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연구되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박미자, 이창식, 2008; 이은경, 2006)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수가 적어 제한적인 실정이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 지지의 대표적인 유형 중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경우, 2003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2004년 4월 1일 기준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삼아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3,449명의 청소년 및 부모를 표집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2004) 자료에서 4차년도(2006) 자료까지 최종표본으로 선정된 3,449명을 대상으로 반복 추적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2학년의 자료는 1차년도에 3,449명이 표집으로 선정되었지만, 2차년도에 3,188명(조사성공율 92.4%), 3차년도에 3,125명(조사성공율 90.6%), 4차년도인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표본유지율은 90.5%(3,121명)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매년 표본유지율(2003년 1차년도의 조사성공 패널수 대비 당해의 조사성공율)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학업스트레스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며 각 문항은 모두 5점 Likert척도(1: 그런 적 없다, 5: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 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척도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 8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남(명)	여(명)	합계(명)	표본유지율(%)
중3 (2차년도)	1,594	1,594	3,188	92.3
고1 (3차년도)	1,572	1,553	3,125	90.6
고2 (4차년도)	1,565	1,556	3,121	90.5

2) 정신건강[1)]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정신건강을 묻는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공격성과 분노, 우울, 불안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각 내용은 모두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높은 점수일수록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척도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 83으로 나타났다.

3)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패널데이터 자료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부모애착(6문항) 및 부모감독(4문항)으로 총 10문항, 각 내용은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 90으로 나타났다.

4) 또래와의 관계

청소년패널데이터 자료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총 7문항으로 학교친구와의 관계(역채점 문항 1문항을 포함한 3문항)와 친한 친구와의 관계(4문항)를 묻는 내용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2)],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나에 대한 친구들의 평을 중요시한다,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 7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청소년패널데이터의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1>에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변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 각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상호작용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β 값을 산출하였다. 즉, 정신건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인으로 선정한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각각 투입하고, 다음 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 항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

1)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나 척도들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지표로 공격성과 분노, 우울, 불안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 척도의 하위영역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SCL-90-R)에 의하면 하위영역으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불안공포, 편집증, 정신증의 9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7)에서 개발한 청소년정신건강지수에서는 정서문제, 비행문제, 정신병적문제, 스트레스 관련문제 등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공격성과 분노,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정신건강의 요소라 할 수 있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2) 역채점 문항

<표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업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중3 (2차년도)	12.03(3.41)	32.79(7.48)	33.98(7.00)	27.44(3.73)
고1 (3차년도)	12.79(3.49)	32.18(7.18)	34.12(6.75)	27.92(3.52)
고2 (4차년도)	13.00(3.50)	32.07(7.23)	34.43(6.89)	27.92(3.50)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중3 (2차년도)		학업스트레스	1			
		정 신 건 강	.33**	1		
	사회적관계	부모와의 관계	-.15**	-.14**	1	
		또래와의 관계	-.02	-.07**	.24**	1
고1 (3차년도)		학업스트레스	1			
		정 신 건 강	.32**	1		
	사회적관계	부모와의 관계	-.03	-.15**	1	
		또래와의 관계	.05**	-.13**	.27**	1
고2 (4차년도)		학업스트레스	1			
		정신건강	.31**	1		
	사회적관계	부모와의 관계	-.01	-.15**	1	
		또래와의 관계	.05**	-.13**	.21**	1

* p< .05 ** p< .01

의 관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r = .31~.33(p < .01)으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중 부모와의 관계와 정신건강은 r = -.15~-.14(p < .01)로 부적 상관을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중 또래와의 관계와 정신건강은 r = -.13~-.07(p < .01)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비록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아 많은 표집수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상관관계를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관계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부모와의 관계가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와의 관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 = .105, p<.05), 이때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0.1%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246, p<.05)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0.2%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와의 관계가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주효과를 통제한 후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또래와의 관계가

<표 4>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

예측변인	정신건강					
	중3(2차년도)		고1(3차년도)		고2(4차년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β		β		β	
학업스트레스(A)	.320***	.235***	.311***	.510***	.313***	.271***
부모와의 관계(B)	.098***	-.159***	-.142***	.002	-.152***	-.183**
A×B		.105*		-.246*		.053
R2	.120	.121	.120	.122	.122	.122
⊿R2		.001		.002		.000
F	213.69***	144.216***	209.724***	142.151***	216.252***	144.252***

*p<.05 **p<.01 ***p<.001

<표 5>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

예측변인	정신건강					
	중3(2차년도)		고1(3차년도)		고2(4차년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β		β		β	
학업스트레스(A)	.336***	.188***	.322***	.594***	.326***	.608***
또래와의 관계(B)	-.072***	-.141***	-.144***	-.020	-.144***	-.014
A×B		.172**		-.307*		-.319*
R2	.118	.121	.119	.121	.122	.124
⊿R2		.003		.002		.002
F	210.291***	144.363***	207.403***	139.924***	214.473***	144.829***

*p<.05 **p<.01 ***p<.001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또래와의 관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 = .172, p<.01), 이때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0.3%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 .307, p<.05)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0.2%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 .319, p<.05)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0.2%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또래와의 관계가 완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사회적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가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해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중 부모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의 종단적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밀접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살과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들(문경숙, 2006; 홍영수, 2005; Lee & Larson, 2000; O'Donnel 외, 1995)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한 사회적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는 정신

건강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의 경우 그 정도가 미약하여 상관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또래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이미 가정환경과 정신건강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최옥순, 2004)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어유경, 2005),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김현순, 2005)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업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토대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절할 수 있는 예방적 관점에 초점을 둔 개입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절변인인 사회적 관계 중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부모와의 관계가 조절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중요하다는 연구들(신민섭 외 1990; 전영주, 2001; Grotevant & Cooper, 1998)과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다른 연구들(박정녀, 최해림, 2005; 장휘숙, 1997; Wagner 외, 2003), 그리고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역할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고정자, 2005; 이경님, 2004; Raja 외, 1992)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애정적 유대감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의 결과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어 가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통한 지속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발달특성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를 위한 개입의 적절한 시기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개입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절변인인 사회적 관계 중 또래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학령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Bryant, 1982)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므로(Buhrmester, 1990)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참조그룹(reference group)으로서 (Hartup, 1983)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가족을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하는 가운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어 사회 및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느 발달단계보다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서 또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교육적 상황에 맞춰 청소년기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인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재적인 교육정책에서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 변인을 밝혀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부모・또래와의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척도별 문항 수가 적어 변인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모형의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의 조절효과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의 증가로 인해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부정적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상정한 연구와 조절변인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승호 · 정은주(199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0-32.

강은실 · 송양숙 · 조향숙 · 강성년(2004). 청소년의 자살시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90-199.

고재홍 · 윤경란(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2),** 185-212.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권오숙 · 문성호(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31-46.

김기환 · 전명희(2000). 청소년의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김성경(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15(1),** 381-406.

김인숙 · 이경님(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김현순(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 ·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뉴시스(2009). 고교생 4명 중 1명 "시험 스트레스로 자살충동". 2009. 7. 30.

모상현 · 김미영(2009).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 · 외재적 변인탐색과 보호요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2),** 1-19.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문경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기통제 및 감정조절의 역할. **아동학회지, 29(5),** 285-299.

문영주 · 좌현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8,** 353-379.

박정녀 · 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보건복지부(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신현균(2002). 청소년의 학습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안혜원 · 이재연(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어유경(2005). **취약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염행철 · 조성연(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9(2),** 1-21.

오미향 · 천성문(1994).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5,** 63-96.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 22-32.

윤혜미 · 남영옥(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이경님(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2**, 43-54.

이경숙 · 김정호(2000).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5(1)**, 43-59.

이경진 · 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리(1994).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대한가정관리학회지, 105**, 89-98.

이은희 · 최태산 · 서미정(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이인정 · 최해경(200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임은미 · 정성석(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17.

정의숙 · 김갑숙(200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71-81.

조강래(2007). **고3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증상과 대처방식: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아미(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43(3)**, 137-155.

최명구 · 신은영(2003). 청소년의 자아구조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7(4)**, 1-16.

최옥순(2004).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 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건환 · 장휘숙 · 안권순(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 및 문제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한태영(2005). 청소년의 학교 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77-197.

홍영수 · 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홍영수(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7-33.

Agnew, R., Brezina, T., Wright, J., Cullen, F.(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40(1),* 43-72.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413-425.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Geraed, M. & Buehler, C.(2004). Cumulative Environmental Risk and Youth Maladjustment: The Role of Youth Attributes, *Child Development, 75(6)*, 1832-1849.

Gore, S. & Eckenrode, J.(1994). *Context and Process in Rese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oss, M. W., and Siperstein, G. N. (1997).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Exceptional Children*, 63(2), 183-203.

Grotevant, H., and Cooper, C. R. (1998).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E. E. A. Skoe & A. L. von der Lippe. *Pe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cross national and life span perspective*, NY: Routledge.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Y: John Wiley.

Lee, M., and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MacKinnon, D. P. & Leucken, L. J.(2008). How and for Whom? Mediation and Moderation in Health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27(2),* 99-100.

O'Donnel, J., Hawkins, J. D., and Abbott, R. D.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29-537.

Raja, S. N., McGee, R., and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Wagner, B. M., Silverman, M. A. C., and Martin, C. E. (2003). Family factors in youth suicidal behavio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171-1191.

Woodward, L. J., and Fergusson, D. M. (1999). Childhoo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1),* 87-108.

□ 접 수 일 : 2010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10년 0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24일